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박 걸 순*

Ⅰ. 머리말
Ⅱ. 충북지역 3·1운동의 양상
1. 만세운동의 배경과 통계
2. 지역별 만세운동의 양상
Ⅲ. 충북지역 3·1운동의 성격
Ⅳ. 맺음말

Ⅰ. 머리말

3·1운동은 일제 강점기 최대의 독립운동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독립운동의 참여계층이 각계의 민중으로 확대되고, 독립운동의 공간이 국내외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3·1운동은 1920년대 이후 독립운동의 이념이 다원화되고 방법론이 다양화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따라서 3·1운동의 지역사적 특징을 규명하는 것은 단지 3·1운동사뿐만 아니라, 이를 전후한 시기 그 지역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과 운동 양상을 실체적으로 이해함은 물론 현대사의 추이로도 연계되는 중요한 주제이다.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그러나 충북지역의 독립운동사 연구는 아직 사실의 확인 등 현상적 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운동 주체 세력의 존재 형태나 역량, 시기별·계열별 운동 양태 등이 인과적으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그 주요한 원인은 운동사의 측면에서 충북지역의 독립운동이 타 지역에 비해 미약하여 주목받지 못하였고, 연구사의 측면에서는 연구자가 부재했으며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전에 충북지역 3·1운동의 지역사적 특성 파악을 통한 전후 독립운동사의 규명 및 민족대표 등의 인물 연구를 통한 평전의 집필, 유적지의 정밀한 고증과 현장 학습장으로의 활용 등을 제안한 바 있다.[1)]

충북지역의 3·1운동에 대하여는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진봉은 호서지역 3·1운동의 요인과 전개, 성격을 밝혔고,[2)] 황부연은 충북지역 3·1운동의 배경과 각 지역별 만세시위, 일제의 탄압, 만세운동의 특징을 검토하였다.[3)] 박걸순은 청원과 괴산 등 일부지역의 3·1운동을 검토한 바 있고, 의병장 한봉수의 연구를 통해 독립운동선상에서 의병과 3·1운동의 맥락이 전승된 사실을 규명하였으며,[4)] 충북 출신 민족대표의 공판기록을 분석하여 그들의 독립사상을 정리하였다.[5)] 한편 김진호는 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과 지역별 시위 양상 및 일제의 탄압을 개괄하였다.[6)]

---

1) 朴杰淳, 「忠北地方 獨立運動史의 硏究現況과 課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0, 355~389쪽.
2) 金鎭鳳, 「湖西地方 3·1運動의 性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 1987, 129~150쪽.
3) 黃富淵, 「忠北地方의 三·一運動」, ≪忠北史學≫ 제1집, 충북사학회, 1987, 1~26쪽.
4) 박걸순, 『槐山地方의 抗日獨立運動』, 괴산문화원, 1996;「義兵將 韓鳳洙의 抗日鬪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0집, 1996.
5) 박걸순, 「3·1운동 공판기록을 통해 본 충북 출신 '민족대표'의 독립사상」, ≪中原文化硏究≫ 제13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10.
6) 김진호·박이준·박철규, 『국내 3·1운동 -남부-』(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지역의 3·1운동사 연구는 좀 더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7] 본고는 이 같은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먼저 3·1운동의 실태 파악을 위해 일제 측의 육군성, 조선총독부경무국, 조선군사령부의 전보·보고·조서 등 정보관계 문서, 공판기록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만세시위의 전개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충북지역 3·1운동의 양상

1. 만세운동의 배경과 통계

일제는 만세시위의 지방 확산의 구체적 원인을 독립선언서 배포 등 중앙과의 연계로 파악하였다. 충북지역은 천도교측의 印宗益이 독립선언서의 배포를 담당하였는데, 3월 2일 경에는 다수의 독립선언서가 청주에 배포되었다. 일제는 충북지방 3·1운동의 동기를 인종익과 서울에서 내려온 자들의 독립선언서 배포와 선동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8]

조선헌병대사령부의 『朝鮮騷擾事件狀況』에는 충북지역 만세운동 발발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되어 있다. 먼저 그들은 자기네들의 善政에 의해 충북지역의 민심이 구래의 惰眠性을 타파하였고 재정적으로도 좋아졌으며, 자신들의 적극적인 인명과 재산 보호에 따라 한인이 충심으로 同化에 순응하고 있다고 왜곡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

7) 충남지역의 3·1운동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이 나온 바 있고(金珍皓, 「忠南地方 3·1運動 硏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지역별 시위 상황을 밝힌 박사 학위 논문에서도 충북지역에 대하여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李廷銀, 「3·1運動의 地方示威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8) 高第六九二二號, 1919. 3. 14,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十四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原書房, 1967, 359~361쪽).

는 유생과 양반을 중심으로 경술국치 때 순절한 洪範植과 金濟煥 등을 찬양하고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하면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여기거나, 민족자결주의의 유포에 따라 평소 온건한 지식계급까지 이에 기울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광무황제의 폭붕에 따른 憤死와 毒殺說 소문이 돌아 민심이 흉흉하며, 국장에 會葬하기 위해 상경하였다가 '불온 인쇄물'을 두루마기 속에 꿰매 가지고 오거나 우편으로 친지에게 붙이는 자들이 있었고, 상경했던 자들이 귀향하여 서울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하며 인심이 완전히 동요하기에 이르렀다고 파악하였다.[9]

일제는 전국적으로 만세시위가 발생하자 충북지역민이 이 같은 분위기에 '감염'되었다고 하며 당시 충북 지역민의 심리상태를 다음과 같이 5개의 부류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1. 조선의 독립은 기대할 수 없지만 조선 민족의 의기를 드높여 위정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것.
2. 소요를 일으키면 강화회의에 반향되어 독립될 수 있다고 하는 流說을 妄信한 것.
3. 소요에 가담하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세상에서 嘲罵된다는 것.
4. 소요에 참가하지 않으면 후일 독립되었을 때 학대당하여 세상에서 행세할 수 없다는 것.
5. 이미 독립이 되었다고 妄信한 것.[10]

한편 일제 헌병대는 충북 지역민이 식민지 통치에 대해 지니고 있는

9) 朝鮮憲兵隊司令部. 1919, 『朝鮮騷擾事件狀況』(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1973, 472~474쪽).

10)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495~496쪽. 일제는 이 같은 다섯 부류 중 첫 번째는 홍명희가 유일한 예로서 그는 민족자결이 조선 민족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당장 독립을 쟁취할 수 없지만 일제의 압제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두 번째 경우는 약간 이해력이 있는 계층의 인식이고, 나머지는 하급 노동자들로서 만세시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들의 인식이라고 파악하였다.

불만에 대해 ① 조선인 관리의 대우가 열등한 점, ② 조선을 식민지시하여 조선인을 멸시 冷遇하는 일, ③ 국비로 해야 할 공사의 부역을 인민에게 부과하는 일, ④ 인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갖가지 공사를 하는 일, ⑤ 공동묘지제를 강행한 일, ⑥ 민정을 조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산업장려를 한 일, ⑦ 행정 관리는 오만하고 친절함이 없으며 압박 수단으로써 임하는 일 등 일곱 개로 파악하였다.[11]

이로서 보면 충북지역의 만세운동은 전래적으로 전통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충효정신, 민족의식의 배태와 식민지 통치에 대한 대항의식, 광무황제의 폭붕과 민족자결주의의 제창 등 국내외적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12]

다음에 규명하여야 할 것은 충북지역 만세운동의 개괄적 통계이다. 충북지역의 만세운동을 알려주는 몇 개의 통계자료가 있다. 3·1운동 관련 통계로서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은 1919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국제연맹에 제출하기 위해 임시사료편찬회(총재, 안창호)를 조직하여 편찬한 『韓日關係史料集』의 제4부에 첨부된 「독립운동일람표」이다.[13]

『韓日關係史料集』에 수록된 충북지역 3·1운동 관련 통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충북지역 3·1운동 통계표(Ⅰ)>[14]

11)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집, 760~761쪽.
12) 그러나 종교적 영향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3·1운동 입감자 도별 종교인 통계에 의하면 267명의 종교인 입감자 중 충북은 함북과 함께 1명도 없었다(近藤劒一, 『万歲騷擾事件(1)』, 223~227쪽).
13) 박걸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역사서 편찬」, 『大韓民國臨時政府樹立80周年記念論文集(下)』, 국가보훈처, 1999.
1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2005, 731~732쪽.

郡名	月日	會集數	死亡數	被傷數	被囚數	主謀團體
槐山	3. 20	6,000				
淸州	3. 23	5,000			20	天道敎
沃川	3. 27	4,700	40	92	48	
永同	3. 30	1,000				
鎭川	4. 2	900				
堤川		2,900	16	25	41	
陰城		2,000	6	10		
忠州		3,250	12	36	48	
忠淸北道		25,750	74	163	157	

이 자료는 지금까지 거의 활용하지 않은 것이나, 3·1운동 직후 정리된 최초의 기록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정리하여 편찬한 공식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이 자료는 1920년 상해에서 편찬된 金秉祚의 『韓國獨立運動史略』 上篇과 박은식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의 저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학사적 의의와 함께 선행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다만, 이 표에 정리된 날짜 등에 오류가 있고, 그나마 제천·음성·충주는 월일이 누락되는 등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임시정부가 밝힌 것처럼 전체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여 일부 지역만 조사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많이 遺漏되었던 것이다.[15] 보은과 단양이 통계에서 누락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金秉祚의 『韓國獨立運動史略』 上篇과 박은식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의 통계도 중요하다. 전자는 『韓日關係史料集』의 독립운동 부분 책임자로서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담당한 김병조의 저술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나, 중복되는 부분 등 오류가 있다.[16] 지금까지 3·1

1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 720쪽의 「獨立運動一覽表의 注意」.

16) 金秉祚, 『韓國獨立運動史略』 上篇, 上海 宣民社, 1920. 여기에는 충북의 3월 중 시위 통계로서 괴산 6천, 청주 5천, 옥천 4천 7백, 영동, 1천, 음성 2천, 충주 3,250(74쪽), 4월 중 시위 통계로서 영동 1천, 진천 900, 제천 2,900 음성 2천, 충주 3,250(136쪽)이 기록되어 있으나, 4월 통계 중 진천을 제외하고 영동·제천·음성·충주는 3월 통계와 중복된 것이다.

운동의 고전적 통계로 이용된 대표적인 것은『韓國獨立運動之血史』로서, 여기에 기재된 충북 3·1운동 관련 통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충북지역 3·1운동 통계표(Ⅱ)>[17]

府郡名	會集回數	會集人數	死亡人數	被傷人數	被囚人數
槐山	6	6,000			
淸州	7	5,000			20
沃川	7	4,700	40	92	48
永同	2	1,000	25	47	
鎭川	3	900			
堤川	7	2,900	16	25	41
陰城	6	2,000	6	10	
忠州	6	3,250	12	36	48
忠淸北道	44	25,750	99	210	157

그런데 이 자료는 앞의『韓日關係史料集』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거의 비슷하다.[18] 다만, 여기에는 월일 대신 회집회수가 집계되어 있고, 회집인원과 피수인수는 동일하다. 사망자와 피상자수가 증가된 것은 영동의 통계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3·1운동 통계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일제측 자료이다. 경무총감부와 헌병대사령부가 합동 보고한 내용 중 충북지역 만세운동 관련 통계는 다음과 같다.

17) 朴殷植,『韓國獨立運動之血史』, 34~36쪽(『白巖朴殷植全集書』 제2권, 동방미디어, 2002, 174~176쪽).

18)『韓日關係史料集』에 집계된 3·1운동 관련 통계보다『韓國獨立運動之血史』의 통계가 더욱 증대되었다. 그 까닭은 예컨대 진주의 3월 20일의 시위자 수가『韓日關係史料集』에는 8,000명이나『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는 28,000명으로 기록되는 등 자료의 이용 과정에서 천, 또는 만 단위의 숫자가 오류로 추가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박걸순,「大韓民國臨時政府의 역사서 편찬」참조).

<충북지역 3·1운동 통계표(Ⅲ)>[19]

道 別	參加群衆	出動 軍隊		發砲 箇所 (괄호는 헌병)	死傷	
		兵力	箇所		示威群衆	日帝 軍警
忠淸北道	23,730	90	11	9(5)	57	11

이 통계는 임시정부 등 우리 측 통계와 대비해 볼 때 참가인원이 축소되었음은 물론 특히 사상자수가 크게 축소되어 있어 일제측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20] 또한 군대의 출동과 발포 관련 통계 및 자신들의 피해상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듬해 1월 일제는 3·1운동 관련 통계를 수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지역 3·1운동 통계표(Ⅳ)>[21]

道 名	箇所	回數	官憲側		普通民		示威群衆		官公署, 기타 피해
			死	傷	死	傷	死	傷	
忠淸北道	31	37	-	20	-	-	28	50	18

이 통계 또한 우리 측의 자료와 격차를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일제는 이 통계의 '備考'를 통해 소수 인원이 단순히 만세를 외치거나 헌병 경찰관 소재지 외에서 시위가 일어나 후에 발견된 것은 집계하지

19) 朝鮮總督府, 1919. 5. 10, 「騷擾事件報告臨時報第十二」(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754쪽의 「騷擾事件道別表(3. 1~ 4. 30)」). 사상자란의 '시위군중'은 원 자료에는 '暴民'으로 되어 있다.

20) 이 통계에는 참가자 수가 463,068명이고 시위군중의 사상자도 1,199명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어 『韓國獨立運動之血史』의 참가자 수 2,023,098명, 사망 7,509명, 피상 15,961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

21) 「陸軍省發表の損害內譯數訂正方に關する件」(1920. 1. 4, 朝鮮憲兵隊司令官兒島□次郎)(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分冊, 253쪽의 「騷擾箇所及死傷一覽表」). 여기에서 '普通民'은 시위군중(暴民)과 구별하려는 일제측 의도를 보이며, '시위 군중'도 일제측 자료에는 '暴民'으로 표기되어 있다.

않았으며, 동일 장소에서 2회 이상 시위가 일어난 것은 1회로 계상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韓日關係史料集』이나 『韓國獨立運動之血史』도 이 같은 기준에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축소된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충북지역의 3·1운동은 언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언제 어디의 시위를 끝으로 종료된 것인가? 어떤 자료에는 3월 1일 청주,[22] 또는 3월 7일 청주에서 개시되었다고 하고 있으나,[23] 모두 사실과 다르다. 3·1운동 관련 자료 중 가장 신속히 보고한 것은 일제측 자료였다. 물론 일제는 탄압의 주체였기 때문에 상황과 명분에 따라 보고 내용에 축소 또는 과장이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次 또는 정기 보고가 계속되었고 현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측 자료에 의하면 충북 최초의 만세운동 움직임은 3월 10일 밤, 청주농업학교 2년생 31명이 교장에게 시험 연기원서를 제출하였고, 또 1학년생 15명이 이날 밤 비밀리에 기숙사를 탈출한 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는 이를 서울에서 내려온 자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경계하였다.[24] 이는 3월 2일 청주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청주의 만세운동 분위기는 이튿날까지 지속되었으나,[25] 만세운동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3월 15일에는 진천에서 보통학교 생도들이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역시 불발로 그쳤다.[26]

충북에서 본격적인 만세시위는 3월 19일 괴산읍 장터에서 홍명희 등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늦은 출발이었다. 이처럼

---

22) ≪獨立新聞≫, 1919년 9월 2일자.
2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72, 79쪽.
24) 高第六七〇五號, 1919. 3. 11,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十二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350쪽).
25) 朝鮮總督府, 1919. 5. 10, 「騷擾事件報告臨時報第十二」(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709쪽).
26) 朝鮮總督府, 1919. 5. 10, 「騷擾事件報告臨時報第十二」(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712쪽).

충북지역의 만세시위가 늦게 시작된 까닭은 교통의 불편, 종교조직의 미약, 학생층 등 독립운동 주체 세력 역량의 미성숙 등이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7] 그러나 이후 충북지역에서는 4월 19일 제천 송학 시위까지 만 1개월간 도내 각 곳에서 만세함성과 시위가 그치지 않았다. 당시 조선군참모부의 비밀문서는 충청지방을 경기지역 다음의 위험지역으로 간주할 정도로 시위는 격렬히 전개되었다.[28]

日次 보고 등 일제측 자료를 중심으로 충북지방 3·1운동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일제측 자료에 나타난 충북의 3·1운동>[29]

월일	지명	군중수	출동 병력	발포 개소	사상자	계획 진행의 정도
3. 2	청주					선언서 배포
3. 11	청주					불온 행동이 나타날 조짐이 있음
3. 15	진천					보통학교 생도 독립운동을 기도
3. 19	괴산		12(1)			
3. 27	이원	700		1	2(10)	
3. 29	괴산(2)	1,500	15(1)		(1)	
3. 29	영동 서산	200				
3. 30	미원	1,000	7(1)	1	4	
3. 30	청안(3)	3,000	7(1)		7	
4. 1	괴산 청천	500	10(1)			
4. 1	음성 한천	200				
4. 2	진천 석현	다수		1	2	
4. 2	진천 장양	200		1		
4. 2	진천 광혜원	500				
4, 2	음성 천평	500				
4. 2	괴산 장연	200				
4. 2	청주	500				

27) 朴杰淳, 「忠北地方 獨立運動史의 硏究現況과 課題」, 363~364쪽.
28) 朝特報九號, 1919. 4. 7, 「騷擾事件に關する狀況」(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524쪽).

4. 3	영동 괴목	2,000				
4. 3	광혜원(2)	600	6(1)	1	9	
4. 3	옥천 청산	1,000		1	5	
4. 3	영동 서산(2)	300	5(1)	1	10	
4. 4	영동	2,000			14	
4. 4	음성 장호원	2,000				
4. 5	장호원(2)	3,000		1		
4. 6	영동 추풍령	300				
4. 6	청주 문의	1,300	8(1)			
4. 6	음성 음성	500				
4. 8	보은 보은	100	4(1)			
4. 8	옥천 오동	50				
4. 10	괴산 광덕	300	1(1)		1	
4. 11	보은 구인리	100				
4. 12	보은 무서리	100				
4. 13	보은 선곡리	50				
4. 17	제천읍	1,000	15(1)	1	3	
4. 19	제천 송학	50				

※ 괄호 내 숫자 : 지명(발생횟수), 출동병력(출동개소), 사상자(일본측 사상자)

이로써 보면 3·1운동 당시 충북지역에서는 3월 19일의 괴산시위를 필두로 4월 19일의 제천 송학 시위까지 만 1개월 동안 도내 전역에서 38회의 시위가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시위참여 군중 수는 인원이 누락된 괴산(3. 19)과, '다수'라고만 기록된 진천 석현(4. 2)을 제외하더라도 24,750명에 이르는데, 이는 우리는 물론 일제측 통계와도 근사치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당일의 기록으로서 매우 정확하고 상세한 듯 보이나, 누락된 사실이 적지 않다. 당시 충북은 10개 군이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韓日關係史料集』과『韓國獨立運動之血史』등 우리 측 자료에는 보은과 단양의 만세운동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측 자료에는 보은군내 시위가 4회나 기록되어 있다. 단양의 경우도 회고담이나 관

29) 이 표는 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第 I 卷에 수록된 일제의 각종 정보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런 자료에 의하면 군내 각지에서 4, 5차에 걸쳐 소규모의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30] 따라서 충북은 10개 군 전체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측 자료는 물론 일제 측 자료에서도 소규모 인원이 모여 단순히 만세를 외치고 해산한 경우나, 일제 군경이 출동하지 않고 시위 후 자진 해산한 경우, 경찰이나 헌병주재소와 멀리 떨어져 일제가 뒤늦게 파악한 경우 등은 당일의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예컨대 4월 1일과 2일에 걸쳐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 구 장터에서 의병장 출신 한봉수가 주도한 만세시위나,[31] 4월 1일 밤 송태현 등이 청원군 우산리에서 주도한 만세시위,[32] 동일 괴산 소수에서 유해륜 등이 주도한 만세시위[33] 등은 판결문까지 있으나 통계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또한 4월 2일에는 괴산 장연면 오가리와 대성리에서 각각 만세시위가 있었으나, 오가리 시위만 보고하고 대성리 시위는 판결문이 있음에도 누락되어 있다.[34] 한편 일제는 각지의 독립운동 상황을 보고하는 문건에서는 보고하였으나, 통계표에서는 누락시킨 경우가 있는데, 4월 2일 청산 시위가 누락된 것이 그 사례이다. 따라서 3·1운동 관련 통계는 우리 측이나 일제 측 모두 불완전한 것이데, 도내 각 군에서 최소한 50회 이상의 시위가 발생하였음이 확실하다.

2. 지역별 만세운동의 양상[35]

---

3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77~78쪽.
31) 박걸순, 「義兵將 韓鳳洙의 抗日鬪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0집, 1996, 286~288쪽.
32) 국가보훈처, 『獨立有功者功勳錄』 제16권, 2006, 322~323쪽.
3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078~1079쪽의 「柳海崙 등 判決文」.
3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080~1083쪽 「曹圭鶴 등 判決文」과 「金義大 등 判決文」.
35) 당시의 행정구역에 의거하여 서술한다.

가. 괴산군

3월 19일, 충북 최초의 만세함성이 괴산 장터에서 울려 퍼졌다. 이날 만세시위 주도자는 洪命憙였는데, 그는 이날 미리 준비한 독립선언서를 장꾼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의 선두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고종의 인산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하였다가 손병희를 만나고 귀향한 뒤 숙부인 홍용식, 이재성 등과 협의하여 만세시위를 추진한 것이었다.[36]

이날 수많은 시위대는 경찰서로 몰려가 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며 투석전을 벌여 경찰서를 파괴하는 등 이튿날 새벽까지 격렬히 투쟁하였다. 이 때 괴산공보 학생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다음 장날인 3월 24일에는 홍명희의 동생 洪性憙의 주도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29일의 장날에도 다시 만세시위가 벌어졌다.[37]

청안은 縣 치소가 있던 옛 고을로서, 3월 30일의 청안 장날 3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모여 3차에 걸쳐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 때 군중들은 경찰관 주재소와 우편소를 습격하며 격렬히 항쟁하였는데, 일제의 발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38]

장연면에서는 4월 1일과 2일에 걸쳐 2백여 명의 시위대가 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가 있었고, 인근의 대성리 뒷산에서 30여명의 동리사람들이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한편 4월 1일에는 청천면에서 청천장날을 이용하여 만세 시위를 벌이던 중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고, 2일에는 소수면에서는 주민들이 면장 집과 주재소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칠성면에서는 4월 3일 쌍곡리에서 만세시위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도안면에서는 4월 10일 광덕리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는데, 일제의 야만적 탄압으로 희생자가 발생하였다.[39] 괴산은 도내 만

---

3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079~1080쪽의 「洪命憙 등 判決文」.
37)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괴산문화원, 1996, 109~111쪽.
3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084~1085쪽의 「金明鎭 등 判決文」.

세운동 진원지이자 최다 인원인 6천여 명이 참가한 지역이다.

나. 옥천군

3월 27일 옥천 이원장터에는 6백여 명의 시위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이다가 이원경찰주재소로 쇄도하여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주재소 안으로 돌입하여 유치장과 벽을 파괴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다. 이때 옥천헌병분대장 등이 응원 출동하였으나, 오히려 10명의 헌병이 부상할 정도로 시위 군중의 기세가 등등하자 일제는 다시 장교 이하 21명을 파견, 사격을 감행하여 희생자가 발생하였다.[40] 조선헌병대사령부는 이원 시위를 충북지방에서 '폭행 시위의 효시'라고 보고하였다.[41]

4월 2일과 3일에는 청산에서 만세함성이 울려 퍼졌다. 2일 밤에 3백여 명이 전개한 시위는 곧 해산되었으나, 이튿날에는 1,000여 명의 군중이 청산 헌병주재소를 내습하였는데 위기를 느낀 일제가 무차별 발포를 감행하여 5명이 현장에서 순국하였다.[42]

4월 8일 밤에는 군서면 오동 헌병주재소 관내에서 약 50여 명의 주민이 독립만세를 고창하였으나 헌병이 출동하자 곧 해산하였다.[43]

다. 영동군

3월 30일 학산면 鋤山 경찰관 주재소에 2백여 명의 주민들이 돌을 던지고 안으로 들이닥쳐 유리창과 전화를 부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나, 7명의 경찰관이 응원 출동하여 군중을 해산시켰다.[44] 서산리에

---

39) 朴杰淳, 『槐山地方 抗日獨立運動史』, 113~114쪽.

40) 高第九一四六號, 1919. 3. 28,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二十九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 I 卷, 431~433쪽).

4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1973, 533쪽.

42) 高第九八三三號, 1919. 4. 4,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三十七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 I 卷, 505쪽) 및 朝鮮憲兵隊司令官 發信 電報, 1919. 4. 6(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 I 卷, 515쪽).

43) 高第一一〇一四號, 1919. 4. 11,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四十四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 I 卷, 593~594쪽).

44) 高第九六一三號, 1919. 3. 31,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三十二報)」(金

서는 다시 4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군중이 경찰주재소와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건물을 파괴하며 시위를 벌이자 일제가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45]

4월 2일부터 4일에 걸쳐 매곡면 노천리와 옥전리 일대에서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시위군중은 인근의 추풍령 헌병대로 몰려가 전후 7회의 시위를 벌였다.[46] 4월 5일 매곡면 추풍령 헌병분견소 숙사가 불탔는데, 일제는 이를 '폭민'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6일 오전 11시에는 6백여 명의 주민이 분견소로 몰려가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곧 해산 당하였다.[47]

4월 3일에는 양강면 괴목리에서 2,000여명의 군중이 봉기하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였는데, 일제는 인근에서 경찰 5명을 응원 출동시켜 해산시켰다.[48]

4월 4일에는 영동읍에서 2,000여명의 대규모 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였는데, 헌병이 응원 출동하여 경찰과 함께 사격을 감행하여 6명이 순국하고 8명이 부상하였다.[49]

라. 음성군

4월 1일 소이면 한천 장날 200여명의 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이다 일제의 발포로 다수의 순국자가 발생하였으며, 2일 밤에는 삼성면 천평리에서 5백여 명의 군중이 만세를 외치며 경찰 주재소로 들이닥쳤고,

---

正明編,『朝鮮獨立運動』第Ⅰ卷, 441쪽).

45) 朝鮮憲兵隊司令官 發信 電報, 1919. 4. 6(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第Ⅰ卷, 515쪽).

4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자료집』제5권, 1120~1122쪽의「林奉春 등 判決文」.

47) 高第一〇四六〇號, 1919. 4. 7,「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四十報)」(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第Ⅰ卷, 522쪽).

48) 高第九八三三號, 1919. 4. 4,「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三十七報)」(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第Ⅰ卷, 505쪽).

49) 朝鮮憲兵隊司令官 發信 電報, 1919. 4. 6(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第Ⅰ卷, 516쪽).

주천·내송·쌍정리 등지에서도 시위가 계속되었다.[50]

장호원(현재 경기도 이천시) 시위는 단일 지역 시위로는 최대 규모였다. 4월 4일의 시위에는 2,000명이 참가하였고, 이튿날 3,000여 명이 다시 일어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일제는 위협적인 발포를 감행하여 군중을 해산시켰다.[51]

4월 6일 밤 9시경에는 음성읍 부근 고지에서 5백여 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이자 보병과 경찰이 출동하여 해산시켰다. 4월 11일 밤에는 원남면 주봉리에서 80여 명이 소규모 시위를 벌였으나 곧 해산 당하였다.[52]

마. 청주군

청주에서는 3월 2일 독립선언서가 발견되고, 3월 10일 청주농업학교 학생들의 시위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만세시위는 3월 23일 강내면 태성리에서 조동식 등이 산위에서 봉화만세시위를 벌이며 시작되었다.[53]

3월 30일, 군내 최대의 만세운동이 미원장터에서 벌어졌다. 이날은 미원 장날로 1천여 명의 시위군중이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자, 주재소에서 헌병이 출동하여 주도자를 연행하였다. 이에 분노한 군중들은 주재소로 몰려가 유리창을 부수는 등 격렬히 항쟁하였는데 일제의 발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54]

---

50) 高第九八三三號, 1919. 4. 4,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三十七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505쪽).

51) 高第一〇四六〇號, 1919. 4. 7,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四十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522쪽).

52) 高第一〇五六八號, 1919. 4. 8,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四十一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544쪽) 및 高第一一二四八號, 1919. 4. 13,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四十六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601쪽).

5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102~1103쪽의 「趙東植 判決文」.

54) 高第九六一三號, 1919. 3. 31,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三十二報)」(金

4월 1일과 2일에는 내수 세교리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의병장 출신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한봉수의 지휘로 내수보통학교 학생들이 벌였다는 점에서 특기하여야 한다.[55] 1일 밤에는 세교리 인근의 우산리에서도 수십 명의 주민이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56] 또한 4월 2일에는 북이면 신대리에서 면서기가 주도한 만세시위가 전개된 것도 이채롭다.[57]

4월 2일 밤에는 청주 부근의 산 위에서 5백여 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출동한 일제에 의해 제지당하였으며,[58] 4월 6일 오후 8시경에는 문의 산 위에서 1,300여 명의 대규모 군중이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외치다가 하사 이하 보병과 헌병이 출동하여 주도자 8명이 피체되기도 하였다.[59]

청주군은 손병희·권병덕·신석구·신홍식·정춘수 등 1개 군에서 5명의 민족대표를 배출한 점에서 특기하여야 할 것이다.

바. 진천군

3월 15일 진천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시위 계획은 8명이 피검되며 불발로 그쳤으나,[60] 4월 2일에는 군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이월면 장양에서는 200여 명의 주민이 헌병주재소를 내습하자, 헌병들이 공포를 발사하며 무력진압에 나서 해산하였다. 또한 이날 밤 만승면 광혜원에서는 500여 명의 군중이 헌병주재소를 습

正明編,『朝鮮獨立運動』第Ⅰ卷, 441~442쪽).

55) 박걸순,「義兵將 韓鳳洙의 抗日鬪爭」, 287쪽.

56) 국가보훈처,『獨立有功者功勳錄』제16권, 322~323쪽.

57) 이날의 시위는 金浩相·金貞煥·李始雨(이상 면서기)·張星伊(면 고용원) 등 면직원들이 주도하였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자료집』제5권, 1105쪽의「金浩相 등 判決文」.

58) 高第九八三三號, 1919. 4. 4,「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三十七報)」(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第Ⅰ卷, 505쪽).

59) 高第一〇五六八號, 1919. 4. 8,「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四十一報)」(金正明編,『朝鮮獨立運動』第Ⅰ卷, 544쪽).

6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운동사자료집』제6권, 815쪽.

격한 뒤 다시 면사무소로 몰려가 면장과 면서기를 구타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고,[61] 백곡면 석현에서는 다수의 군중이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여 헌병과 충돌하였다.[62]

4월 3일에는 다시 광혜원에서 600여명의 군중이 2차에 걸쳐 봉기하여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다가 헌병이 응원 출동한 보병과 합세하여 발포를 감행하여 4명이 순국하며 5명이 부상하였다.[63]

사. 충주군

3월 15일 충주 장날을 이용한 간이농업학교와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시위 계획은 일경에 탐지되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64] 그러나 4월 1일 신니면 신청리 용원 장날, 500여 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전개하였다.[65]

아. 보은군

『韓日關係史料集』과 『韓國獨立運動之血史』 등 우리 측 자료에는 보은의 만세시위가 누락되어 있으나, 일제측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다. 4월 초에 들며 인근의 옥천과 영동에서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자 보은에서도 만세운동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일제는 대전으로부터 장교 이하 16명을 파견하여 삼엄한 감시를 하였다.[66] 그러

---

61) 高第九八三三號, 1919. 4. 4,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三十七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505쪽).

62) 朝特報九號, 1919. 4. 7, 「騷擾事件に關する狀況」(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538쪽).

63) 朝鮮憲兵隊司令官 發信 電報, 1919. 4. 6(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515쪽).

64) 류자명, 『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30~32쪽. 이 시위 계획의 주도자는 류자명이었다.

6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091~1094쪽의 「殷慶玉 등 判決文」.

66) 朝特報十號, 1919. 4. 16, 「騷擾事件に關する狀況」(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621쪽).

나 주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4월 8일 보은 소재지에서 100여 명이 시위를 벌였고, 11일에는 산외면 구티리에서 100여 명이 종을 울리며 만세운동을 시작하다가 급히 출동한 일경에 의해 해산 당하였다.[67]

4월 12일 밤에는 수한면 무서리에서 주민 100여명이 산위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며 만세운동을 벌였고, 13일 밤 11시에는 삼승면 선곡리 주민 30여명이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68]

자. 단양군

3월 4일부터 3일 동안 만세시위가 있었다는 회고담이 있으나,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69] 또한 3월 20일 오후 8시경 군내 각 처에서 봉화시위를 벌인 후 해산하였으며, 4월 6일 단양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하나, 이 또한 일제측 자료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70]

차. 제천군

4월 17일의 제천 장날, 1천여 명의 시위군중은 장터에서 미리 제작 배포한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쳤다.[71]

4월 18일에는 송학면 면사무소 앞뜰에 70여 명의 주민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는데,[72] 이들은 이튿날 오전 1시경 면장 사택으로 몰려가 면장을 끌어내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 당하였다.[73]

---

67) 騷密第四三號, 1919. 4. 15,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四十八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603쪽).
68) 騷密第三四三號, 1919. 4. 17,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五十報)」(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627쪽).
6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77~78쪽.
70)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 1959, 889쪽.
7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090~1091쪽의 「李範雨 등 判決文」과 「張用根 등 判決文」.
7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089쪽의 「崔鍾律 判決文」.
73) 騷密第六一五號, 1919. 4. 21, 「極秘 獨立運動に關する件(第五十四報)」(金

Ⅲ. 충북지역 3·1운동의 성격

충북지역의 3·1운동은 발발 시점이나 시위 규모, 전개 양태 등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빠르다거나 대규모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특징과 의의가 결코 작다고 할 수만은 없다. 충북지역 3·1운동의 특징과 의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으로 후발적이나 지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만세운동의 발발은 3월 19일의 괴산 시위로 본격화하여 전국에서 가장 늦은 출발을 보이나, 4월 19일의 제천 송학 시위까지 1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 절정기는 4월 초순이었는데, 특히 2일에는 청주·진천·괴산·음성·옥천·영동 등 거의 도내 전역에서 만세 함성이 메아리쳤다. 진천에서는 하루에 3개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이날 청주 인근의 산봉우리에는 동시에 봉화가 올랐으며, 괴산에서는 3회 연속하여 장날에 만세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둘째, 공간적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발발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충북은 10개 군이었는데 한 군데도 빠짐없이 만세운동에 동참하였다. 『韓日關係史料集』과 『韓國獨立運動之血史』 등 우리 측 자료에 보은과 단양이, 일제 측 자료에 단양이 기록에서 누락되었으나, 이는 전문이나 보고 상의 착오에 의한 것일 뿐이다. 특히 괴산읍·괴산 청안·영동 서산·진천 광혜원·옥천 청산·음성 장호원 등지는 한 곳에서 2회 이상의 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특히 청안에서는 3월 30일 하루에 3차에 걸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셋째, 시위 양태가 격렬하였다는 점이다. 일제의 『朝鮮騷擾事件經過槪覽表』에 의하면 충청지역에서 전개된 92회의 만세시위 중 55%인 51회가 폭력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 평균치 37%를 훨씬 상

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640쪽).

회하는 것으로 운동 양상의 격렬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실제 충북의 경우 시위 군중들은 경찰관서 13, 헌병대 5, 군청과 면사무소 7, 우편소 1개소 등 26개소를 습격·파괴·방화하였다. 이처럼 시위양상이 격렬하였기 때문에 평안·경기지역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74] 만세시위가 격렬하게 된 것은 군중이 피체된 동지를 석방시키기 위해 헌병과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파괴하는 과정에서 일제와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일제는 군중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주도자를 연행하지 않고 얼굴만 확인해 두었다가 나중에 체포하거나, 변장한 헌병과 경찰을 시위 군중에 혼입시킨 다음 색연필로 주도자의 옷에 표시를 하게 하였다가 나중에 연행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75] 충북지역 만세시위의 격렬성은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인이 경비 무력이 있는 소재지로 피난하거나 아예 일본으로 귀국하려는 자까지 있었다는 조선헌병대사령부 보고를 통해 그 정황을 잘 알 수 있다.[76]

넷째, 독립운동의 내재적 계승과 맥락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3·1운동은 한말의 국권회복운동과 1910년대의 비밀결사투쟁을 계승한 것인데, 특히 충북지역은 구한국 군인이나 의병장 출신이 3·1운동을 주도하고 있어 의병으로부터 3·1운동으로 연계되는 독립운동의 내재적 전개를 실증하고 있다. 4월 2일 진천 광혜원 시위를 주도한 尹炳漢은 구한국 육군 참위 출신으로 군대 강제해산 이후 의병항쟁에 참여하였다가 귀향하여 區長으로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77] 또한 4월 3일 영동 학산 서산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梁鳳植은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한 의병 출신이며,[78] 4월 1일과 2일 청원 내수 세교장터

7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930~931쪽.
7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634쪽.
7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796쪽.
7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087~1089쪽의 「尹炳漢 등 判決文」 및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68쪽.
7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123~1126쪽의 「梁鳳植 判決文」.

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한봉수는 대표적인 후기 의병장 출신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인물이다.[79] 이들은 독립운동의 내재적 계승과 맥락을 실증하는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시위방법으로 봉화만세운동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봉화만세운동은 50여 일간 충청지역 18개 군에서 계속된 것인데,[80] 충북에서 이 방법을 최초로 창안한 것은 청주 강내면 태성리에 거주하던 趙東植이었다. 그는 국가에 변란이 있을 때 봉화를 올려 서로 알리는 '烽火告變'의 전통을 참작하여 3월 23일부터 3일간에 걸쳐 봉화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81] 이곳에서 시작된 봉화만세운동은 즉시 유행하여 4월 초에는 면내와 옥산, 남일을 비롯한 인근 지역은 물론 멀리 충남과 강원까지 파급되었다.[82] 봉화만세운동은 온건한 충북 지역민의 기질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 운동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호당 1, 2명이 의무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산에 만세 하러 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83]

여섯째, 충북은 이른바 민족대표의 산실로서 의의도 크다는 점이다. 민족대표 33인 중 孫秉熙·權東鎭·申錫九·申洪植·權秉悳·鄭春洙 등 6인이 충북 출신이다. 현재 학계에서 민족대표의 대표성과, 3·1운동에서의 역할에 대해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그들이 계몽주의자로서 한계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은 법정에서도 당당한 독립논리를 펴며 투쟁하였다. 물론 鄭春洙의 경우처럼 자치론을 펴고 스스로 일본의 보호국이 되기를 자원하는 등 민족대표로서 3·1운동의 이념을 왜곡하고 후에 변절한 인물에 대

79) 박걸순, 「義兵將 韓鳳洙의 抗日鬪爭」, 267~285쪽.
80) 金鎭鳳, 「湖西地方 3·1運動의 性格」, 146~148쪽.
8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102~1103쪽의 「趙東植 判決文」. 조동식은 조선족으로서 1998년 인민정치협상회의 제9기 전국위원회에서 군부 대표로 부주석에 선출된 조남기의 조부이다.
8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533쪽.
8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496쪽.

해서는 엄정한 민족사적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84]

일곱째,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배격하고 타격을 가하였다는 점이다. 충북 지역민은 일제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 산업정책을 강요하는데 강한 불만을 지니고 있었다.[85]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구체적인 사례는 4월 3일 양봉식 등이 주도하여 전개한 영동 학산 서산 시위였다. 이날 300여 명의 시위 군중들은 양봉식의 지휘 아래 면사무소에 심어 놓은 桑苗 2만 8천 그루와 松苗 1만 그루 등 3만 8천 그루의 묘목을 뽑아내 불태워 버렸다. 양봉식은 좁쌀 살 돈도 없고 묘목을 심을 땅도 없는 주민들에게 비싼 묘목을 강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군민 대표를 자처하며 시위를 주도하였다. 일제도 서산 시위의 원인을 당국이 植林을 강요하여 토지가 없는 주민들에게까지 묘목을 강매하고 대금을 징수한 때문이라고 인정하였다.[86] 또한 충북 지역민

---

84) 1919년 5월 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판사 永島雄藏의 신문에 대한 鄭春洙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李炳憲, 『3·1運動秘史』, 557쪽).
問 : 民族自治란 것은 무엇인가?
答 : 독립이라 하는 것은 일본과 전연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고 민족 자치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주권을 얻어 자치하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인데 자못 韓日合併 전의 統監府 시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問 : 민족 자치를 한다면 어떠한 政體를 구성하려고 생각하였는가?
答 : 그것은 일본 정부에서 자치를 허락한 후 共和政體나 專制政體를 할 것을 결정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問 : 그러면 피고의 민족 자치라고 하는 것은 독립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答 : 나는 保護國이 되는 것이 獨立國이 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였다.

85) 일제는 청주군의 예를 들며 "산업 장려에 대한 불만은 민도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일의 성공을 서두른 결과 일률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인민의 고통이 심하다. 토지 없는 자에 뽕나무 묘목을 강제로 분배하고 대금을 받아 내기 때문에 인민은 이를 땔감으로 하여 대금을 지불하며 혹은 죽은 묘목을 분배하고 대금을 독촉하거나 가마니 제조를 강제하여 한 호당 1개월에 몇 매씩 만들어 내라고 엄명하여 독촉하기 때문에 인민 중 자기가 만들지 못하는 자는 부득이 매월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提納하고 있다. 이런 일을 호소해도 관리는 조선인의 말을 흘려듣고 만다"고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였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762쪽).

은 식민지 교육에 대해서도 불만을 지니고 있었는데, 괴산·충주·진천·제천·내수 등지에서는 학생들이 시위를 계획하거나 동참한 바 있다.[87] 3·1운동의 여파는 일제 식민지 교육 거부로 연계되어 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1/3밖에 되지 않거나 일제의 교육기관을 피해 서당에 들어가는 생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88] 한편 만세운동이 전개되는 동안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져 일본인 상점의 수입이 1/3로 감소하기도 하였다.[89] 이에 일제는 친일 관료와 부호 및 일본인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自制會·自制團 등의 어용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향촌질서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이는 국지적으로 민족의 내부 붕괴를 기도한 것이었다. 일제가 어용조직을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한 것은 이미 의병전쟁 때 의병과 민중간의 유대를 끊기 위해 획책한 바 있다.[90] 그런데 이러한 친일 어용조직이 독립운동의 탄압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악명을 떨친 것은 3·1운동 때였다.[91] 이러한 어용조직은 지주 중심의 친일기구로써 주로 일부 남부지방에서 조직되었으나, 조직 과정에서 민중의 저항을 받기도 하였다.[92] 충북에서는 4월 중순에 淸州自制會가 조직되었는데, 이는 조선인 부호와 유력한 일본인 거류민의 연합조직으로써 독립운동을 억제하고 향촌 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양국민의 상호 융화를 표방하여

---

8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535쪽 및 815~816쪽. 청주에서는 陸地棉 재배를 거부하여 재배량이 3할이나 감소하였다.

87) 『朝鮮騷擾事件狀況』에는 류자명이 교원으로서 학생들을 선동하여 만세시위를 계획하다가 도망하여 免官되었다고 특기하였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815쪽).

8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815쪽.

8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796쪽.

90)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二, 300~301쪽.

91) 朴杰淳, 「3·1運動期 國內 秘密結社運動에 대한 試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194~197쪽.

92) 충북에서도 일부 친일파가 주도한 自衛團 가입을 거부한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제가 자제회나 자위단 등 친일 조직을 강화회의에서 한국인이 병합에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선전 자료로 악용하는 것을 우려하였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6권, 675쪽).

결국 한민족말살과 '내선일체'에 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93]

여덟째, 충북지역의 3·1운동은 20~30대의 젊은 농민층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충북의 각 군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 피체된 자로 연령이나 직업의 확인이 가능한 인원은 139명인데, 이들은 20대가 61명(44%), 30대가 41명(29.5%)으로 전체의 3/4에 달한다. 또한 이들 중 다수인 103명(74%)의 직업이 농업이었다.[94]

마지막으로 3·1운동은 이후 충북지역 독립운동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3·1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전위로 성장하며 1920, 30년대 동맹휴학 등을 통해 충북지역 민족운동을 선도하였다.[95] 류자명처럼 3·1운동의 참가를 계기로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로 성장하여 중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주도하거나, 홍명희처럼 국내 독립운동을 주도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젊은 농민층인 3·1운동 주도자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에 거주하며 이후 전개된 청년운동, 신간회운동 등을 주도하였다.

Ⅳ. 맺음말

본고는 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을 살펴본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충북의 3·1운동은 전래적으로 전통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충효정신, 민족의식의 배태와 식민지 통치에 대한 대항의식, 광무황제의 폭붕과 민족자결주의의 제창 등 국내외적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

93) 『每日申報』, 1919년 4월 15일자. 淸州自制會의 發起人은 閔泳殷·安東正·元光漢·韓性敎·廉宣赫·吉原治三郎·松本杉·齋藤金藏 등이었다.

94) 黃富淵, 「忠北地方의 三·一運動」, 18~19쪽.

95) 박걸순, 「日帝下 忠北地方의 學生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7집, 2001, 355~386쪽.

3·1운동에 관한 통계로서 임시사료편찬회에서 간행한『韓日關係史料集』은 짧은 기간에 해외에서 간접 견문에 의해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될 수 없었다. 또한 이를 저본으로 재정리한 金秉祚의『韓國獨立運動史略』, 朴殷植의『韓國獨立運動之血史』도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한 일부 일제측 자료도 있으나, 의도적 왜곡을 주의하여야 한다. 현재로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일제의 일차 보고인데, 이를 종합하면 충북에서는 3월 19일 괴산 시위를 필두로 4월 19일의 제천 송학 시위까지 만 1개월 동안 38회의 시위가 확인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히 누락된 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충북에서는 50회 이상의 시위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충북지역 만세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간적으로 후발적이나 지구성을 보이며 도내 전역에서 격렬한 형태의 만세시위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괴산 등지에서는 한 곳에서 2회 이상의 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특히 청안에서는 3월 30일 하루에 3차에 걸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시위양상이 격렬하였기 때문에 충북은 평안·경기지역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둘째, 독립운동의 내재적 계승과 맥락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4월 2일 진천 광혜원 시위를 주도한 尹炳漢은 구한국 육군 참위 출신으로 의병항쟁에 참여하였고, 4월 3일 영동 학산 서산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梁鳳植은 이강년 휘하에서 활동한 의병 출신이다. 또한 4월 1일과 2일 청원 내수 세교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한 한봉수는 충북의 대표적인 후기 의병장 출신이다. 이들은 의병에서 3·1운동으로 전승되는 독립운동의 내재적 계승과 맥락을 실증하는 구체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시위방법으로 봉화만세운동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봉화만세운동은 50여 일간 충청지방 18개 군에서 계속된 것인데, 청주 강내면 태성리에 거주하던 趙東植은 '烽火告變'의 전통을

참작하여 3월 23일부터 3일간에 걸쳐 봉화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곳에서 시작된 봉화만세운동은 즉시 유행하여 4월 초에는 면내와 옥산, 남일을 비롯한 인근 지역은 물론 멀리 충남과 강원까지 파급되었다.

넷째, 충북은 이른바 민족대표의 산실로서 의의도 크다는 점이다. 민족대표 33인 중 孫秉熙·權東鎭·申錫九·申洪植·權秉悳·鄭春洙 등 6인이 충북 출신이다. 물론 그들이 계몽주의자로서 한계를 지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충북 출신 민족대표들은 법정에서도 당당한 독립논리를 펴며 투쟁하였다.

다섯째,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배격하고 타격을 가하였다는 점이다. 4월 3일 양봉식 등이 주도한 영동 학산 서산 시위는 일제의 비현실적인 강제적 산업정책에 저항한 대표적 사례이다. 3·1운동의 여파는 일제 식민지 교육 거부로 연계되어 신입생 모집이 1/3밖에 되지 않거나 일제의 교육기관 입학을 거부하고 서당에 들어가는 생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인 경영 상점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져 그들의 수입이 1/3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일제는 친일 관료와 부호 및 일본인 등을 중심으로 自制會·自制團 등의 어용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향촌질서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20~30대의 젊은 농민층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충북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 피체된 139명의 연령별 통계는 20대가 61명(44%), 30대가 41명(29.5%)으로 전체의 3/4에 달한다. 또한 이들 중 다수인 103명(74%)의 직업이 농업이었다.

마지막으로 3·1운동은 이후 충북지역 독립운동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전위로 성장하며 1920, 30년대 동맹휴학 등을 통해 충북지방 민족운동을 선도하였다. 류자명처럼 3·1운동의 참가를 계기로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로 성장하여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거나, 홍명희처럼 국내 독립운동을 주도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주도층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에 거주하며 이후 전개된 민족운동을 주도하였다.

[논문접수:2010.11.15, 심사시작:2010.12.01, 심사완료:2010.12.3]

주제어 : 충북지역, 3·1운동, 만세시위, 민족대표

< 참 고 문 헌 >

○ 자료

≪獨立新聞≫

대한민국임시정부, 『韓日關係史料集』, 1919(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7, 2005).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1920(『白巖朴殷植全集書』 제2권, 동방미디어, 2002)/

金秉祚, 『韓國獨立運動史略』 上篇, 上海 宣民社, 1920.

金正明編, 『朝鮮獨立運動』 第Ⅰ卷, 原書房, 196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196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집～제6집, 1972.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시사시보사, 1959.

국가보훈처, 『獨立有功者功勳錄』 제16권, 2006.

○ 논저

金鎭鳳, 「湖西地方 3·1運動의 性格」,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집, 1987.

金珍皓, 「忠南地方 3·1運動 硏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김진호·박이준·박철규, 『국내 3·1운동 -남부-』(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박걸순, 「3·1運動期 國內 秘密結社運動에 대한 試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 『槐山地方의 抗日獨立運動』, 괴산문화원, 1996

-----, 「義兵將 韓鳳洙의 抗日鬪爭」,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0집, 1996.

-----, 「大韓民國臨時政府의 역사서 편찬」, 『大韓民國臨時政府樹立80周年記念論文集(下)』, 국가보훈처, 1999.

-----, 「忠北地方 獨立運動史의 硏究現況과 課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5집, 2000.

-----, 「日帝下 忠北地方의 學生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7집, 2001.

-----, 「3·1운동 공판기록을 통해 본 충북 출신 '민족대표'의 독립사상」, ≪中原文化硏究≫ 제13집, 2010.

李廷銀, 「3·1運動의 地方示威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6.

黃富淵, 「忠北地方의 三·一運動」, ≪忠北史學≫ 제1집, 1987.

<ABSTRACT>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March First Movement in Chungbuk province

Park, Gul-sun

The March First Movement that occurred in Seoul and other big cities on March 1, 1919 had been spreading into other areas. The movement in Chungbuk had taken place due to the domestic and overseas circumstances, including loyalty and filial piety based on traditionally introduced Confucianism, buds of national consciousness, resistance against colonial governance, King Gojong's sudden death, and proclamation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From the start of a demonstration in Geosan on March 19, 1919 to demonstrations in Jaecheon and Songhak on April 19, 1919, 38 rounds of demonstrations over one month had been found in Chungbuk. Given the number of missing demonstrations, more than 50 rounds of demonstrations occurred in Chungbuk. Some places like Geosan had seen over 2 rounds of Manse demonstrations, in particular, 3 rounds of fierce demonstrations on March 30, had taken place in Cheongahn. Due to such a severe demonstration, the number of victims in Chungbuk was placed in the third following Pyongahn and Gyeonggi provinces.

With regard to the point of occurrence, the size of demonstration,

and its development, it is impossible to estimate that the March First Movement in Chungbuk province occurred earlier or larger than in other provinces. However, it has a great significance. Although Manse Demonstration in Chungbuk started later, it had continuously and fiercely developed in the entire areas of the province. A beacon Manse Demonstration occurred in a hill became a unique demonstration, spreading into neighboring regions. Yoon, Byung-han (Jincheon), Yang, Bong-sik (Young-dong) and Han, Bong-soo (Cheong-won) who were patriotic soldiers, took the lead of the Manse Demonstration. This actually proves the inherent development of independence movement handing down from patriotic soldiers' activities to the March First Movement. In addition, that 6 out of 33 nationalists-Son, Byung-hee, Kwon, Dong-jin, Shin, Seok-gu, Shin, Hong-sik, Kwon, Byung-duk, Jeong, and Chun-soo-came from Chungbuk province proves that the province had a critical role in leading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Chungbuk March First Movement had mainly been led by young farmers aged between 20 and 30 years old. They denounced the Japanese colonialism and hit a blow on it, and later took the lead of national movement as an advanced guard of independence movement.

Keywords: Chungbuk province, The March First Movement, Manse Demonstrations, nationalists